

대구사진사 지형도 그리기: 1930-60년대 사진단체를 중심으로

김 소 희 (뮤지엄한미연구소 학예연구관)

I.

오늘날 한국사진사에서 대구는 최계복(1909-2002), 구왕삼(1909-1977) 등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가를 배출한 '사진 도시'로 묘사되곤 한다. 최계복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진공모전에서 가장 많은 입상을 기록한 사진가로, 대구아마추어사우회(1934)와 경북사진문화연맹(1945)을 창립하고 한국사진예술학원(1952)을 설립하는 등 대구사진계에 입지전적 활동을 남겼고, 1950-60년대 사진비평가로 활동했던 구왕삼은 리얼리즘 사진으로 한국사진계를 선도했다. 이들과 함께 대구사진계는 1950-60년대 해외공모전에 크게 부응했고, 1963년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지부가 주최하고 대구사우회가 주관하여 처음으로 《제1회 한국국제사진살롱》을 개최하기도 했다.¹⁾ 그러나 대구사진사의 전개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진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구의 사진단체는 최계복, 홍사영, 구왕삼, 안월산(1909-1978), 신현국(1924-1997), 김재수(1929-2006) 등 근현대사진가들의 활동 모체였고, 사진단체와 더불어 모더니즘 사진의 다양한 면모를 비평과 실천 사이 또는 경쟁과 경합 사이에서 모색해 나갔기 때문이다. 이들이 일군 일련의 움직임과 더불어 후학 양성과 교육자 배출 등 사진교육 제반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진의 전문화는 곧 사진비엔날레 운용 등 한국사진의 제도화를 본격화했다. 193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사진단체들의 왕성한 활동은 '대구하면 사진', '사진의 메카 대구'라는 문구를 각인시키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1960년대 전후 일간지상에서 있었던 일련의 논쟁들은 소모적 언쟁의 양상을 띠며 한동안 대구사진계의 정체를 가져왔고, 입상 위주의 사진 체제는 공모전 양식의 고착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이들이 보여준 사진의 역동적 에너지는 지역의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한국사진의 주요한 성장 발판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대구사진사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한국사진사 기술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사진제도와 사진담론 같은 한국사진사의 중요 사안에서 대

1) 1963년 5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지부 주최하고 대구사우회가 주관한 《한국국제사진살롱》은 한국 최초의 국제사진공모전으로 대구 경북공보관에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었고 이후 서울 중앙공보관과 부산 공보관에서 순회전을 개최했다.

구사진사는 비교적 자주 누락되었다. 이 글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대구 사진단체들의 주요 인물과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구 사진단체의 활동을 따라서 대구사진사의 지형을 재인식하는 것은 한국사진사를 환기하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II.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처음으로 예술사진²⁾이 소개된 것은 1930년 조선일보사 대구지국이 주최하여 대구도청 앞 임시 회장에서 개최된 정해창(1907-1968)의 《예술사진 개인전람회》였다.³⁾ 이 전시는 1929년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정해창의 첫 번째 개인전의 대구 순회전으로 열렸다. 정해창은 사진을 순수 창작의 독립적인 장르로 인식하고 개인전이라는 미술형식으로 발표한 한국 최초의 사진가였다. 사진단체 활동이나 사진공모전을 중심으로 사진이 제작, 유통되던 시기에 개인전은 이례적인 전시 형식이었고,⁴⁾ 사진가의 지방 순회전이 열린 것은 대구가 처음이었다. 정해창의 대구 순회전은 입장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천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신문 매체는 전하고 있어 예술사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열띤 관심과 호응을 짐작케 한다.⁵⁾ 1930년대 대구에서 한국인 사진가와 사진단체의 등장 이전 열린 《예술사진 개인전람회》 순회전은 근대적 미술 형식으로 예술사진을 소개하고 사진에 대한 예술적 인식을 전파한 최초의 전시였다.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예술사진을 실천한 대표적인 한국인 사진가는 최계복이다. 최계복은 일본 유학 중 미술에서 사진으로 전격 전향했고, 사진관에서 재직하며 사진을 전문적으로 습득했다. 1933년경 일본에서 귀국하여 최계복사진기점을 운영했고 1934년 장병진, 조상규, 정운상과 함께 대구 최초의 한국인 사진단체인 대구아마추어사우회를 창립했다.⁶⁾ 대구아마추어사우회의 결성 목적이나 미학적 지향점을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창립자 최계복은 일제강점기 일본과 조선에서 열리는 사진공모전에서 수많은 입상작을 내며 전국으로 이름을 알린 사진가였고, 그를 주축으로 결집한 대구아마추어사우회가 공모전으로 자리잡은 예술사진을 실천했음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같은 해 전조선사진연맹(이하 사진연맹)⁷⁾의 창립이 대구아마추어사우회의 결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사진연맹은 전국 사진단체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관리 기구였다. 사진연맹이 주최하는 행사의 참여 조건이 사진연맹에 가입된 5인 이상의 사진단체에 한하자, 조선인 사진단체들의 결성은 곧 사진연맹의 가입으로 이어졌다.⁸⁾ 사진연맹이 1934년부터 1943년까지 경성일보사와 공동주최한 《조선사진전람회》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대표적인 사진공모전이였다. 영향력 있는 심사위원과 일제 관직의 상명을 부여한 사실상의 관전으로, 10년간 조선의 사진가를 배출하고 예술사진을 공인하는 대표적인 사진제도도 자리 잡았다. 《조선사진전람회》의 입상 이력은 사진가로서 지위 획득은 물론 예술적 성과에 대한 인정의 기회였기에, 일제 주도의 사진계에서 비교적 좁은 입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

사진가들에게는 더욱 긴요한 활동의 장으로 여겨졌다. 대구에서 가장 먼저 사진연맹에 가입해 활동한 사진단체는 대구사우회였다. 대구사우회는 1934년 대표 우메가네 긴조(埋金磨)와 다나카 쇼타로(田中小太郎), 마치다 간지로(町田勘次郎), 미치다 구코(町田久吾) 등 10여 명의 일본인 중심으로 형성된 사진단체였다. 일본인 중심이긴 했으나 최계복, 정운상, 서병직도 대구사우회 회원으로 활동했다.⁹⁾ 대구사우회는 1934년부터 《조선사진전람회》에서 꾸준히 입선작을 내긴 했으나, 한국인 사진가들의 《조선사진전람회》 입선은 대구아마추어사우회의 활동과 함께한 1937년부터였다.

대구아마추어사우회는 1937년 박삼식을 비롯해 홍사영, 구왕삼, 안월산, 김원영 등 회원을 총원해 연맹에 가입했는데, 그 해 《제4회 조선사진살롱》에서 최계복, 장병진, 정운상의 4점이 가작에 선정되었고, 1938년 《제5회 조선사진살롱》에서는 최계복, 장병진, 박삼식, 1939년 《제6회 조선사진살롱》에서는 장병진, 최계복 그리고 1940년 《제7회 조선사진전람회》에서 조상규가 차례로 입선했다. 대구아마추어사우회의 《조선사진전람회》 입선작들이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모전 사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공모전은 주로 회화주의와 함께 신흥주의라 불렀던 유럽의 모더니즘 사진도 공존하고 있었다. 단지 당시 조선의 사진계는 각 사진 경향의 용례나 형식적 범주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예술사진 혹은 공모전을 가리키는 ‘살롱사진’이라는 용어 안에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1937년 《제1회 남량사진현상모집》의 3등 작 〈한가한 어부〉는 향토적 소재를 택했지만 원근법을 왜곡하는 부감 촬영으로 회화주의와 뉴비전(New Vision)의 영향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¹⁰⁾ 1938년 일본 사진신보사의 월례 공모전에서 특선 제1석을 차지하며 『사진신보』의 11월호 지면에 게재된 박삼식의 〈엄마를 기다림〉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사진잡지에 실린 입상작이다. 〈엄마를 기다림〉은 회화적 소재의 농가 풍경을 포착한 전형적인 공모전 사진이다.¹¹⁾ 반면에 동공모전에서 입선한 최계복의 〈수영복의 여인〉은 수영과 휴양을 연상시키는 근대적 소재가 등장하고 있지만 사진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대구아마추어사우회는 1930년대 일간지와 잡지가 주도한 사진공모전을 통해 당대의 사진예술을 개진, 정착시켜 나갔다. 이들은 소수의 한국인 사진가들의 입지 전적 성과를 보여주었고, 대구라는 지방의 한국인 사진단체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주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전시체제기 일제에 의한 전국 사진단체 통폐합과 함께 1940년 이후로 사라졌다.

해방을 맞이하며 대구사진계는 새롭게 결성되는 사진단체들에 의해 빠르게 확장, 재편되었다. 1945년 최계복 최고위원장을 중심으로 경북사진문화연맹이 조직되었고, 1946년 대구사연회를 결성한 박삼식, 조상규, 구왕삼은 정운상, 장병진 등과 함께 조선사진동맹 대구 지부에서 함께 활동했다.¹²⁾ 같은 해 홍사영을 중심으로 대구사광회가 1947년에는 최준경, 김



1938년 11월 『사진신보』 표지.



박삼식, 〈엄마를 기다림〉, 1938년경.

9) 대구사우회는 회원모집을 통해 선별된 우수작을 『경성일보』를 통해 발표했고, 경성일보사의 대구지국에서 회원전을 개최하는 등 대구에서 명성을 가진 단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1936년 6월 제28회 정기모임의 13명의 출석자 중에서 최계복은 유일한 조선인 회원이었으나, 서병직도 그해 11월 회원전 입선자 목록에 등장했다. 서병직이 대구아마추어사우회의 회원이었던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대구사우회의 회원전에서 꾸준히 입상한 최계복은 1938년에 간사를 역임했다.

10) 일제강점기 사진공모전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봉림, 『광화문빌딩 2층에서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한국사진사 인사이트 아웃, 1928-1982』(가현문화재단, 2022), 11 참조.

11) 필자가 현재까지 확인한 한정된 자료에 따른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박삼식의 입상 이전에 임응식의 1934년 사진살롱지 공모전 입선작 〈초자의 정물〉은 사진이 수록되지는 않았다. 최계복도 1936에서 1937년까지 일본 아사히신문사와 후지필름 등 일본의 사진공모전에서 여러차례 입상한 바 있으나, 사진의 수록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1938년 사진신보사의 사진공모전에는 박삼식의 특선작이 수록되었고 두 사진가의 입선작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신보』, 1938년 11월, n.p., 60.

2) 예술사진은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자리잡은 ‘회화주의(Pictorialism)’의 일본식 번역어로, 전통 매체인 회화의 기법과 기교를 모방해 회화적 효과를 얻은 사진을 일컬었다. 예술사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어 일본인 영인사진가들과 사진단체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1930년대 전후 신문 매체에서 소개되고 촬영회나 사진 현상모집이 생겨나면서 참여 대상이 일반으로 확산되자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3) 『대구 예술사진전람회』, 『조선일보』, 1930년 10월 10일.

4) 정해창의 개인전 이후 1931년 서순상의 《제1회 예술사진전람회》가 조선일보사 평양지국에서 열렸고, 만주 대련에서는 현일영의 《제1회 개인전람회》가 차례로 열렸다.

5) 『대구예술사진전람회』, 위의 기사.

6) 조명원, 『사진계연표』, 『66 한국사진연감』(한국사진문화사, 1962), 14; 강상규, 『한국사진사』(형설출판사, 1976), 126.

7) 전조선사진연맹은 조선총독부 산하 기관지 경성일보사의 지원을 받은 조선총독부의 관변단체였으며, 연구조사, 전람회, 강연 등 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전개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했다. 1934년부터 1943년까지 전개한 《조선사진전람회》는 공모, 심사, 전시 체제를 통해 사진을 제도화한 최고 권위의 사진공모전이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7 전조선사진연맹 《조선사진전람회》 관련 『경성일보』 자료집 1934-1943』(가현문화재단, 2013) 참조.

8) 1934년 서순삼, 현일영 등이 발족한 평양오월회는 1935년 사진연맹에 가입했고, 임응식과 이형록이 활동했던 강릉사우회는 1935년 창립해 1936년 가입했으며, 박필호가 활동했던 경성사진사협회도 1936년 사진연맹에 등록했다. 1937년 결성한 정운상의 회령사우회는 1941년 사진연맹에 가입했다. 한국인 사진단체의 가입은 위의 책, 228-235 참조.



안월산, <직녀>, 1949.



구왕삼, <콩나물>, 1940년대.

원영 등의 대구사우회가 차례로 발족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열린 사진공모전은 경북사진문화연맹이 주최한 《건국사진공모전》(대구 공회당, 1946.2.24.-28.)으로, 최계복의 심사로 홍사영, 구왕삼, 안월산 등이 입상했다. 이는 해방 이후 대구에서 열린 첫 번째 전시였으며, 입상자들은 1947년과 1948년 조선사진예술연구회 주최의 《조선예술사진공모전》과 1948년과 1949년 국제보도연맹이 주최한 《한국향토문화사진전》 그리고 1948년 영남일보사의 《한국향토예술사진전》 등 크고 작은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하며 대구 사진예술의 맥을 이어갔다. 1940년대의 입상작들은 안월산의 <직녀>나 <기와굴의 아침>과 같이 주로 농촌 풍경을 다루는 해방 이전의 공모전 사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한편에는 구왕삼 작 <콩나물>처럼 사물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사진적 모색이 움트고 있었다. 사진단체가 주최하는 사진공모전이 한국사진계를 주도하는 가운데, 사진단체는 사진활동의 중심점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진단체는 미학 중심의 결집이 아니라 사진가들의 친목 도모와 사진 발표 그리고 공모전 응모가 주된 활동으로, 해방 이전 사진단체의 모습과 유사했다. 사진단체들의 잇따른 결성과 의욕적인 활동으로 대구사진계는 빠르게 형성되어 가는 듯했으나, 한국전쟁으로 또 한번의 공백기를 맞이했다.

III.

한국전쟁으로 사진단체들이 자연 해산된 가운데, 경북사진문화연맹의 멤버였던 최계복, 홍사영, 안월산, 김원영(1916-1984), 임윤창은 1950년 대구 미국문화공보원에서 《오인동인전》을 개최했고, 이듬해 오인동인을 중심으로 경북사진연맹을 재조직¹³⁾했으나 전세가 기울자 활동은 곧 중단되었다. 1952년 피난지 부산에서 모인 사진인들은 전국 단위의 연합체를 표방하며 한국사진가협회를 결성했는데, 대구에서는 최계복과 홍사영이 발기위원으로 참여했다.¹⁴⁾ 1952년 대구로 돌아온 최계복은 동문동에 한국사진예술학원(1956년 한국전문사진학원으로 개칭)을 개원했다. 이는 전문적인 후학 양성 기관이 전무하던 시기에 대구에 설치된 최초의 사진학원으로, 알려진 커리큘럼은 사진광학, 사진기계학, 인상사진, 창작사진 등 이론보다는 실기 위주의 수업이었다. 이곳의 강사진은 《오인동인전》과 경북사진연맹에서 최계복과 함께 활동한 김원영, 대구사우회(1954)에서 활동하는 강영호(1916-1984), 1949년 최계복과 전국 사진지도자 모임인 예술사진동인회를 결성하고 여러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대한사진예술가협회의 박필호(1903-1981) 등이었다. 강사진들은 예술사진 시대의 미적 가치를 지켜온 사진가들이었고, 한국사진전문학원에서 배출된 사진작가는 최계복이 고문으로 있었던 대구사우회의 김태한(1928-2004)이었다. 김태한은 이후 독일의 주관적 사진(Subjective Photography)의 영향으로 사진의 조형성과 추상성을 발전시킨 작가였다. 그는 안월산이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운영한 월산예술학원의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국사진전문학원을 거쳐 간 수강생들의 목록도 그들의 사진도 남아 있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강사진들과 김태한의 활동을 보면 1950년대 대구 유일

의 사진 교육이 이루어졌던 한국사진전문학원은 예술사진의 명맥이 이어진 곳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대구사우회는 최계복 고문과 안월산 회장 그리고 김원영, 홍사영, 임윤창 등 10인이 모여 ' 상호친목과 연구발표 도모'를 목적으로 1954년 결성되었다. 주축 멤버들은 경북사진문화연맹(1945)의 멤버들이었는데 대구사우회, 경북사진문화연맹, 경북사진연맹 그리고 대구사우회까지 결성과 해체를 하며 회명은 바뀌었지만 구성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구사우회의 단체명은 1934년 '대구사우회'의 회칭을 사용한 것으로, 최계복, 서병직, 정운상 등 당시 대구 최초의 사진단체에서 활동했던 사진가들을 그들의 시원으로 삼았다.¹⁵⁾ 한국인민의 최초의 사진단체인 '대구아마추어사우회'의 동명을 택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아마추어리즘과의 거리를 두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한다. 어찌되었든 대구사우회는 1934년의 활동을 모태 삼아 그들의 전통성을 담보했다. 1947년 발족했던 대구사우회는 부회장의 김원영을 제외하면 해방 이후 활동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크게 연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사우회는 안월산을 중심으로 회원수를 늘려나갔고 1966년 《제9회 대구사우회 작품전》(경북공보관, 8.1.-5.6.)에는 4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대구사우회는 예술사진이 몰락하고 리얼리즘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전통성만을 고수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형태 탐구적인 모더니즘 사진으로 나아갔다. 현실에 잠재된 추상적 언어를 찾고 사진적인 특성으로 표현하는 길만이 리얼리즘과 예술사진을 극복하는 길이었다. 강영호, 김재수, 김태한, 박달근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현실의 풍경에서 잠재된 형태를 찾아내고 조형미를 강조해 사진을 주관적인 표현의 수단으로 삼았다. 박달근은 <누우드>에서 사실적 재현 대신 실루엣으로 조형성을 강조하고, 사진을 굵고 절단하는 등 과감한 시각적 효과를 사용해 사진의 표현영역을 넓혔다. 일상의 풍경에서 미학적 형태를 발견한 강영호는 솔라리제이션 등 자유로운 암실 기법을 사용했고, 1985년에는 복사기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한 <나>* 시리즈를 통해 사진의 광학적 특성을 실험했다. 사진의 광학적 특성은 김재수의 1960년 작 <펜듈럼(pendulum)**> 사진에서 극명해진다. 《제5회 대구사우회 작품전》(대구 USIS, 1960.12.1.-4.) 출품작인 <펜듈럼>은 빛의 움직임에 의해 그려진 심미적인 패턴으로 완성되었다. 이는 1950년대 초 뉴비전에 영향을 받은 서구의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추상적 사진으로 발전된 것이었다. 김태한은 주관적 사진을 비롯 추상표현주의에서 영향을 받아 일상의 흔한 사물, 풍경 등을 빛과 그림자의 추상적 형태로 표현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형태 탐구적 사진의 옆에서 스냅사진이나 리얼리즘 사진도 함께 했다.

대구광화연구회는 1953년 구왕삼을 주축으로 김진욱, 배상하(1922-1965), 손석범, 이정강(1921-1999) 등에 의해 창립되었다. 대구광화연구회는 1955년 신현국이 회장을 맡았



박달근, <누우드>, 연도미상.

12) 『대구시보』 기사에 따르면, 1947년 대구사우회는 임원에 회장 박삼식, 부회장 조상규, 총무 구왕삼, 간사 정운상 외 3명이라고 발표했는데, 같은 시기 조선사진동맹에서는 박삼식이 회장을 맡았고, 조상규는 부회장, 구왕삼은 사기장 그리고 그 외 임원으로 정운상, 장병진이 역임했다. 『해양촬영대회 사연회서 개최, 『대구시보』, 1947년 2월 27일, 『사맹조직 개편강화, 『대구시보』, 1947년 8월 28일.

13) 『경북사단약사』, 『경북사진연감(광복 30주년 기념)』(도서출판 일심사, 1975), n.p.

14) 강상규, 『한국사진사』, 167.

*본 자료집 101참고.

**본 자료집 97참고.

15) 『각씨를 소개』, 『경북사진연감(광복 30주년 기념)』(도서출판 일심사, 1975), n.p.



신현국, <폭음에 지친 어린이>, 1955년경.



배상하, <수녀 수산나>, 1957.

던 대구오광회와 통합해 대구사광회로 재발족했다. 구왕삼은 대구사광회의 고문을 맡았고 손세호가 회장을 맡았다. 대구에서 리얼리즘 사진을 본격화하는 사진단체가 처음으로 결성된 것이다. 그 선두에는 구왕삼이 있었다. 구왕삼은 사진비평을 시작한 1947년부터 회화주의를 답습하는 사진계 풍토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¹⁶⁾ 구왕삼에게 예술사진은 “기형적으로 성장 발달”하고 “일본적 화풍이 잔재”한 사진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사진예술이란 사진의 광학적 원리에 따라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리얼리즘이었다.¹⁷⁾ 구왕삼은 일제강점기 공모전 사진을 살롱사진으로 통칭하며 이를 리얼리즘 사진과 이분법적으로 구분했고, 전자는 타파해야 할 식민시대의 악습으로, 후자만이 순수한 사진예술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사광회가 재결성되는 1955년에 구왕삼은 사진평론가로서 리얼리즘 사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끌어갔다.¹⁸⁾ 그러나 구왕삼을 비롯한 리얼리스트들의 사진 조류에 대한 배타적 구분은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진 사진가들의 이론적 마찰과 갈등을 빚어내고 있었다. 특히 대구사우회 회원들의 작품평이나 전시평에서 나타난 구왕삼의 독설적 표현과 비난적 어조는 사진가들 사이의 ‘언쟁’으로 이어졌다. 1958년 구왕삼과 김태한 사이에서 시작된 신문지상의 언쟁은 구왕삼과 강영호, 김태한과 강신울, 배상하와 김재수 등의 갈등과 대립으로 1963년까지 이어지며 한동안 대구사진계를 대구사우회와 대구사광회로 양분했다. 대구의 일간지상에서 일어난 이 5년간의 논쟁은 사진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차를 엿볼 수도 있었지만, 당시 한국사진계가 지닌 비평적, 이론적 한계도 노정하고 있었다.

구왕삼과 뜻을 같이 하며 리얼리즘 사진을 실천해 나간 대표적인 작가는 박영달(1913-1986), 신현국, 배상하, 김영민(1913-1992) 등이었다. 이들은 일상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냅사진으로 1950-60년대 국내외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하며 작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해나갔다. 당시 대구사진계에서 두 축으로 활동했던 대구사우회와 대구사광회의 작가들은 1957년부터 아사히신문사 주최의 《국제사진살롱》, 미국 US카메라지의 사진공모전, 프랑스 낭트와 홍콩, 호주 등에서 열린 해외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했으며, 1963년부터 개최된 동아일보사의 《동아사진콘테스트》와 1964년부터 설치된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사진부에서 입상하며 사진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국내외 공모전의 입상으로 두각을 나타낸 사진가는 강영호, 김태한, 김재수, 김영민, 도주룡, 박영달, 배상하, 신현국 등으로 이들의 활동은 1950-60년대 공모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진제도에서 대구사진계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김태한과 김재수 등은 1970-80년대 대구, 경북 지역의 사진교육자로 활동하며 후학을 육성했다.

IV.

1930년부터 1960년대까지 30여 년 동안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한 사진단체들 중에서 대구아마추어사우회와 경북사진문화연맹 그리고 대구사광회와 대구사우회에 주목하는 이유

는 이 사진단체들이 이 시기에 한국사진사의 지형을 형성한 주요 의제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1930년대 《조선사진전람회》에서 1970년대 《대한민국미술전람회》까지 한국의 사진가들을 등용하고 사진미학을 육성하며 사진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던 국내외 사진공모전들, 1930-40년대 사진공모전과 함께 한국사진계를 지배한 예술사진의 실천 그리고 1950-60년대 한국사진계에 팽배했던 유럽의 모더니즘 사진과 리얼리즘 사진의 이론적 대립까지 한국사진사의 중심에 위 사진단체들이 있었다. 대구아마추어사우회와 경북사진문화연맹의 회원들은 공모전을 통해 예술사진의 양적 성장을 부추겼고, 이들의 명맥을 이어받은 대구사우회의 강영호, 김재수, 김태한 등은 객관성보다는 조형성에 우위를 둔 유럽의 모더니즘 사진을 행하며 때로는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사진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자 했다. 반면에 대구사광회는 구왕삼, 박영달, 신현국 등을 주축으로 사진의 사실성과 기록성을 사진의 정도라고 주장하며 현실을 꾸밈없이 재현하는 리얼리즘 사진으로 세계적 사진에 발맞출 것을 촉구했다. 대구의 위 사진단체들은 한국사진계의 선두에서 사진적 실천과 도전을 행했고 그 사이에서 겪은 갈등과 마찰은 대구사진계를 넘어 한국사진계의 이론적 한계와 비평의 빈약성을 대변해 보였다. 이 사진단체들의 활동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사진사에서 빠뜨려 언급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회화주의에서 모더니즘으로 변화하는 한국사진의 패러다임의 선두에 있었다. 그들의 보폭은 때로는 리얼리즘을 목적으로 출범한 ‘신선회’(1956)보다 앞섰고, 때로는 조형적 리얼리즘을 추구한 ‘싸롱아루스’(1960)와 그들과 함께 주관적 사진으로 나아간 ‘현대사진연구회’와 함께 혹은 그보다 앞서 보다 넓은 곳까지 닿아 있었다. 대구사광회와 대구사우회는 여전히 지속해오고 있지만 공모전을 발판 삼아 성장했던 그들의 사진적 힘은 공모전 시대가 저물자 함께 사그라들었다. 그들과 함께한 사진적 실험도 이론적 논쟁도 사라졌다.

16) 구왕삼, 「대구사진계를 논함」, 『영남일보』, 1947년 5월 25일, 5월 27일.

17) 구왕삼, 「사진의 리얼리즘 문제」, 1955년 2월 17일.

18) 구왕삼은 1955년 2월 17일 『동아일보』에 「사진의 리얼리즘 문제」, 10월 16일 『매일신문』에 「리얼리즘 사진의 진로」, 11월 12일 『동아일보』에 「주체의식 확립하라 - 제7회 사협전을 보고,를 차례로 발표하며 리얼리즘 사진의 조건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